전북회화



통권 제 3 호
전북회화회발행



표지작가 : 정미현 (丁美泫 : 1964～　　)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3회 및 단체전에 40여차례 참여
- 현 전북한국화회, 전북회화회 회원
- 현 진안 용담중학교 재직

〈작 품〉

- 제목 : 나의 자리
- 크기 : 36.5×36.5cm
- 재료 : 천에 수묵채색
- 제작년도 : 1995년

여기 모인 전북회화회 회원들은 그들가슴속에, 혈관속에 전북의 기상과 분노를 그리고 선험적 예술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시대의 첨병들이다.

세번째 전북회화지 발간을 즈음하여……

'95 미술의 해를 마감하면서 세번째 전북회화회지의 발간은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미술의 해 답게 대규모의 전시와 다양한 미술행사들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온 해 였으며, 미술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행사와 그 노력들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전북회화, 나아가 한국회화의 가능성을 되짚어 보게하고 형식과 모양이 아닌 내용과 정신적인 면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 발판을 마련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아이덴.더티(독자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 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한민족의 문화의 유연함과 가능성이란 그 정신의 유연함에 있다. 살풀이, 화풀이, 원풀이 등에서 고통과 질곡을 풀어 버릴수 있는 민족이기에 고통의 독이 영혼을 범할 수 없었던 민족, 즉 한 민족이었다. 이것은 우리 고유의 풀이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풀이문화란 근원적인 생명의 율동에서 솟아나오는 힘인 신바람인데 이 힘(신바람)이 억압되어 나타난 것이 "한"이다.

이것은 풀수있는 한 이기에 21C에 우리는 그 한을 풀고 세계무대를 이끄는 당당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이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적응력을 보일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인이라 갈파한 것이며 그 유연성은 미술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미술의 해를 그동안 못다 풀었던 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 한마당으로 생각했을때, 그동안 세계를 이끌어왔던 서구문명을 대처할 수 있는 동양문명의 르네상스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전북회화회는 미술의 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21세기에는 우리미술이 세계무대에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95. 12.

전북회화

전북 회화

전북 회화회는 전북 지역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현재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구성－고재명, 김자경, 성민홍, 유선영, 이영현, 이철규, 이철량, 이희춘, 정미현
5. 31～6. 13	**중앙시장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6. 21	신입회원 가입－박인현, 조돈구
12. 29	신입회원 가입－김경운, 김현경, 문순, 지민수, 최전숙
1991. 1. 4～5	스케치 여행 : 해남 대흥사
3. 9～3. 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6. 8～6. 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6. 15	전북의 산하전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역
	사회 : 이철량
	발제 : 지민수, 김현경, 문순, 고재명
12. 14	정기총회, 총무－이영현
	신입회원 가입－김경희, 박양수, 안순금, 조현동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0. 21	정기모임－총무 고재명 선출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2.	회원탈퇴－김경운, 박양수, 박인현, 성민홍, 이영현, 이철량, 이희춘, 조돈구
1993. 3.	신입회원 가입－방정엽,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 조양현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 공간－정기전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6. 5	신입회원 가입－이철량
8.	하계 스케치 여행 : 군산 개야도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중간전시
12.	회원탈퇴－김경희
1994. 1.	신입회원가입－모용수, 양현식, 황미경, 이환배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 M.T (회문산 자연 휴양림)
6. 15～6. 21	**정기전북회화회展**, : (전북예술회관)
7. 29	하계스케치 : 동상수련장
12. 14～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열전 (예루 갤러리)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 해수욕장
	임원선출 : 회장－이철규, 총무－이환배
	신입회원 : 안동선, 김현수, 안윤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 (전북예술회관)
3. 18	세미나 주제 : '우리다운'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 : 박용숙 (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 50주년(기린예원)
12. 22	파출소그림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 파출소 작품 기증)
	정기총회
	회원제명 : 김자경, 전양기
	회원탈퇴 : 유선영, 최전숙, 안동선, 양현식, 김현수, 모용수, 정문배, 조양현

임 소 형 전 : 1995. 8. 2~8. 9(21C화랑. 서울)
1995. 8. 25~8. 31(기린예원. 전주)

수묵 특유의 사변적(思辨的)인 화면과 운필의 분방함, 그리고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채색의 감각적인 구사와 조화가 돋보이는 작가의 화면은 나름대로의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규격화된 물리적인 화면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운(氣韻)에서의 운(韻)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가의 직업연륜에 비추어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임소형의 작업은 그 양식적인 특징에 있어서 일단 채색을 주로하고 수묵을 보조의 수단으로 삼는 절충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청년작가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 자리하는 이와같은 경우는 우리의 교육문화현장의 전통적 심미관을 바탕으로 한 전통파적 아카데미즘의 추구에서 기인하는 바라고 여겨진다.

물론 특정한 양식의 선택과 활용은 전적으로 작가의 주관과 개성에 속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와같은 경향의 작업들이 오늘의 현실속에서 아카데미즘의 한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주의한다면 이와같은 추측은 결코 큰 무리는 아닐듯 싶다.

밝고 화사한 색감을 바탕으로 화면의 주제로 등장하는 여인들의 자태는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이것이 여류작가의 작업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류의 작업들이 그러하듯이 임소형의 작업에서도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유미주의적인 표현의 단서들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대비의 원색들이 어우러지는 화면의 얼개는 탐미적인 감성과 감수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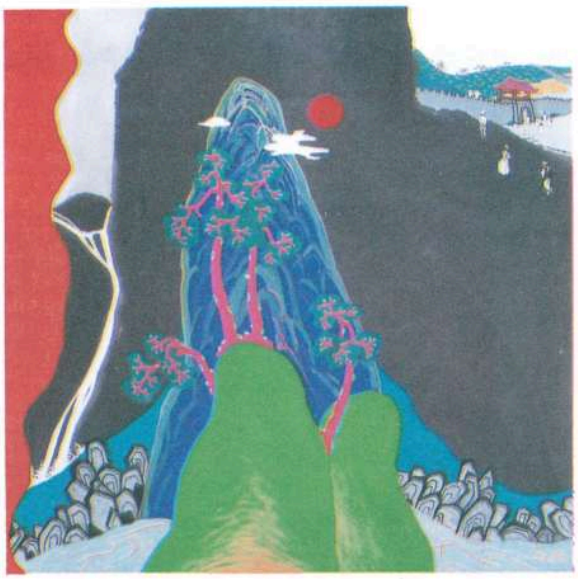
꽃과 여인, 그리고 원색의 대비, 채색과 수묵의 조화 등은 바로 이러한 작가의 유미적 심미기행의 안내서와도 같은 것들이다. 전북회화

김상철/공평아트센터 관장

이 철 규 전 : 1995. 7. 25 ~ 8. 3(동아갤러리)

이철규의 그림은 아름다움에의 찬사 이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나 잃어버린 사실을 일깨워주고 되찾게 해준다.
그의 관심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옛날을 반추함으로써 메마른 우리들 감정을 적셔주려는 데 있다.

『옛날에는』



그림은 화가 개인의 인생관의 **표현**이다. 따라서 그림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관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림은 단순히 미적 대상에 대한 형태적인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철규의 그림은 아름다움에의 찬사 이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나 잃어버린 사실을 일깨워주고 되찾게 해준다. 그의 관심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옛날을 반추함으로써 메마른 우리들 감정을 적셔주려는 데 있다. 현대의 전자 문명과는 완전히 차단된 개화기 이전의 삶을 민화적인 표현 양식 및 기법으로 재현하고 있다. 민화적인 구성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풍속화와 같은 이중적인 내용의 구성이 독특하다. 더구나 수묵과 채색을 혼용하는 채색기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닌데도 신선하다는 느낌이다. 수묵을 채색과 마찬가지로 평면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리라.

"옛날에는……"은 한폭의 민화 또는 풍속화를 보는 듯하다. 실제로 두가지 표현양식을 혼용한 구성은 상충없이 어울리면서 상징과 실제와는 서로 다른 정황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고 있다.

"일월도"에 근거하는 민화적인 평면구성의 간결한 이미지와 여기에 대응하는 옛사람들의 생활 정경은 파노라마를 연상케 한다.

민화적인 이미지는 영생과 영광을 축수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정서를 요약·함축하면서 초월적인 이미지로서 자리한다.

여기에 선명히 대비되는 실제적인 생활상은 이상과 현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의 원형으로서의 사상과 생활상을 통해 진정한 자아회복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회화

신항섭/미술평론가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 강사 : 박 용 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 장소 : 전북예술회관 1층 2실
- 일시 : 1995. 3. 18(토) 오후 3시



한국 미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다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근자에 이르러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대체 '우리다움'이란 어떤 것이며 그런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기회에 그 해답의 전부를 바람직하게 제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논의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대체로 '한국적인것' '한국미술의 특수성'을 논의할 때 제기되었던 지금까지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크게 나눌수가 있다.

① 고고유물을 대상으로 한 미학적인 성찰

② 불교유물에 대한 미학적인 성찰

③ 유교문화유물에 대한 미학적인 성찰

고고유물 ①이 일반적으로 원시신앙의 범주속에 속함으로 ②항이나 ③항 보다는 훨씬 '우리다움'을 논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다. 불교나 유교문화가 발상적으로 외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사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세개의 항목은 하나의 연결고리에 의해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매개역할을 했던 '고리'이다. '우리다움'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도 바로 이 '고리'에 대한 시각이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①항이 끝나고 ②항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②항이 끝나고 ③항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다. ①항과 ②항은 서로 맞수(Counterpart)관계의 긴장속에서 역활을 교체했으며 ②항과 ③항도 그렇다. 결국 이렇게 ①항, ②항, ③항이 통시적(通時的)으로 배열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두개의 항을 잇는 '고리'가 있으므로해서 그 배열이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다움'은 실상 드러나 있는 그 항목에 있었던게 아니고 그것들을 잇게 만든 '고리'라는 매개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이를 테면 선사시대의 유물을 뒤지면 거기에선 흙, 토기류 쇠붙이, 그리고 유골들이 나오며 불교유물을 뒤지면 인도문화의 냄새가 물씬거리고 유교시대의 유물을 보면 중국문화의 냄새가 물씬거릴 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다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고리'란 무엇이며 그 미학적인, 사상적인 본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이번 강연에서는 그 점을 살피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다.

우리미술에 있어서 불교적인 것과 유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제 관찰되고 또 정리되어 있다. 그것은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①항에서 지적된 선사시대에 관한 것들, 예컨데 고분미술에 관한 것은 아직도 황무지나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들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암중 모색될 뿐이며 그 기록적인 자료들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①항과, ②항, ③항간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①항의 문제가 암중모색단계에 있기때문이다.

'고리'의 비밀은 바로 그 ①항에 파묻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미술의 '우리다움'을 발견하는 길은 ①항을 ②항이나 ③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①항을 샤머니즘(神仙敎 혹은 風流道)으로 총칭하고자하며 그것이 ②항이나 ③항과 대등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작은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잇다.

① 사신도(四神圖)

사신도는 지금까지 이해되었던 것처럼 단순히 죽은자의 묘지를 지키는 수문장(守門將)이거나 무슨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미 엘리아데와같은 종교학자가 언급했듯이 우리의 '사신도'도 고대종교의 독특한(maudhala)이며 이 '만다라'는 우주창조(宇宙創造)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옳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신도'가 실은 중국화론의 대가인 장언원(張彦遠)의 '역대명화(歷代名畵))'가 말하고 있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經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고분벽화

고분벽화에서 인간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고분에 묻힌 죽인자(主人)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 그곳에는 천문도(天文圖), 사신도와 같이 동물만을 그렸거나 꽃만을 그린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구려시대의 고분들이 주는 인상은 고대의 모든 신전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인물(神)들과 그들의 전설적인 교훈, 혹은 제의적(祭儀的)인 사건들이 다루어져 있다. 그런 뜻에서 고분벽화는 수묵양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물들은 산수화나 사찰벽화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산수화양식과 사찰벽화에 나타나는 인물의 세계를 고분벽화와 구분해야 되는 것은 회화적인 양식이나 방법상으로 이 양자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③ 풍속화

풍속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료들은 우선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며 이들은 주로 인물화(貴人圖)와 귀인의 행차도를 비롯해서 무용, 격투, 씨름, 사냥, 다도(茶道)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기존학설에 따르면 이들 풍속은 무덤의 임자가 생시에 즐겨하던 놀이의 모습이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거하도록 배려한 그림이다. 그러나 풍속의 뜻 "風流"에 있다고 볼 때 그것들은 모두 그 시대의 종교적인 풍속을 다룬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용, 씨름, 사냥, 다도는 모두 화랑육계(花郞六禮)에 속하는 것들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화는 종교적인 인물로 보아야 한다. 조선조 후기에 단원, 혜원에 의해 제기되는 풍속화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때만이 그 시대적인 의미가 확실하게 부각됨을 보게 된다.

④ 무신도(巫神圖)

李能和가 巫敎의 본질을 귀신오행설(鬼神五行說)이나 점복술(坐史卜祝之法)로 규정했던 것도 무교의 교리가 모든 무속에 앞서 엄연히 선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양오행설이 인간만사에 적용되는 자연적인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로 이 원리가 천문현상이나 인체(의술)에서 연유되며 적어도 기원전 7세기 이전의 세계, 예컨대 중국(周代),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시대에 널리 통용되던 문명의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무교의 특징을 편의상 실학적(實學的)이라는 말로 요약할 필요가 있다. 그럿은 실제로 무신도(巫神圖)의 여러 성격에서 드러나지만 고조선기(古朝蘚紀)에서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악(善惡)등 무릇 360여가지 일을 다스린다 했을 때 이미 그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一然은 〈삼국유사〉에서 "紀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紀異" 시대에 용왕, 용궁, 사녀(蛇女), 산신(山神), 도깨비, 알(卵)의 신화 등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거나 이단시 되었던 여러 신화적인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우리의 고대신화가 바빌로니아, 지중해의 신화와 동질의 것이라고 주장한 단제(丹齋)의 견해나 샤머니즘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두드러진 종교현상이었다고 주장한 엘리아데의 학설을 근거로 하더라도 우리의 무교가 기원전 7세기 이전의 세계문명을 지배했던 문명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정신이 주로 실학적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17세기에 일어났던 실학사상도 그것이 단순히 서학(西學)의 영향에서만이 아니라 기실은 무교적인 르네상스와 관련됨에 유의해야 하며, 혜원이나 단원의 풍속화는 물론 소위 민화(民畵)도 기실은 조선조시대의 단순한 풍속이라기 보다는 고분미술 이후에 잃었던 무교미술의 재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는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을 문턱에 다가와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하늘처럼 떠받들어 왔던 서구미술의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80년대 왁짝찌걸하게 떠들던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아직은 그 존재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제의 것이거나 오늘의 것이지 내일의 것일수가 없으며 더욱 우리의 손에의해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자신의 문제의식에 눈을 떠야 할 때다. 진정으로 서구예술을 깊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표류하고 있는 20세기 미술의 난파선에서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자리에 있다는걸 실감하리라 믿는다.

나는 이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할 많은 일 가운데서 가장 초보적인 일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의 신화(神話)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서구미술의 뿌리는 그리스·로마의 신화와 기독신화이다. 그것은 고전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을 관통하는 전천후적인 그들의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현대미술도 신화의 패래디(parody)나 변주(modification), 재인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왜, 서구미술을 추종해야 하는가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화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그리스신화나 기독교신화 속에 엄청난 정신적인 자산이 있듯이 우리의 신화에도 엄청난 정신적인 자양분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화속에서 21세기의 미술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①항과 ②항 혹은 ②항과 ③항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주로 ①항에 있다고 한 것도 바로 이 '신화'의 문제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즉 '고리'는 우리의 신화이다. 불교문화나 유교문화가 발상적으로 외래적인 것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나름의 미술문화를 꽃피었던 것도 바로 우리의 '신화'가 들어나 있지는 않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누가 무어라고 하건 우리의 신화를 우리나름으로 재생하고 모든 표현기술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새로운 우리시대의 미술작품을 창조해내야 할 것이다. 전북회화

젊은 작가들에게-젊음과 언더그라운드 운동



군산대학 교수/행위설치미술가
이 건 용

젊다는 것은 한계이면서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진 의미이다. 누구나 한때 젊음을 통과한다. 그것은 살아있음으로해서 갖는 특권이며 어쩔수 없는 통과의례이다. 이 통과 의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값을 다 치뤄야하며 치룬 값 만큼 드러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음은 눈앞의 성급한 성공이나 드러남 보다는 언더그라운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는 때가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왔다.

이 언더그라운드의 맛과 법칙을 아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서두르거나 초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세상은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대 중반 이후에서 30대 초까지 장래를 함께할 동역자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작품과 그 활동에 관계된 이론적 텍스트들을 밤을 세워 토론하고 골몰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름길로 가고 있는 또 다른 동년배 친구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 그들이야 말로 가장 예술가 답고 가장 천재적인 행각을 보였지만 우리 미련한 언더그라운드 친구들은 거의 일생을 좌우하고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적인 활동에 충실하였다.

그것은 일 이년 사이나 삼년으로 끝나지 않는 끝없는 지적 욕망으로, 한도끝도 없는 탐구의 길을 걸은 것이다. 이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 중에는 평론가로서 두사람이 지금도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작가로서는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언더그라운드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신한 언더그라운드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서 상호 협조할수 있고 이끌수 있는 훈련이 되었기에 자신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폭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던지 동요하지 않고 최선의 방향으로 리더해 나갈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다

누구에게나 일생을 통해서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이 나에게는 50대 초반까지 살아온 나로서의 인생의 법칙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기 보다는 숨은 노력이 있을때 반드시 기회는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누가 가장 깊고 길게 누릴수 있는가는 반대급부적으로 그의 숨은 노력과 끝없는 목마른 추구의 숨겨진 부분 만큼의 조건 때문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욕심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그것을 화려하게 꾸미고 위장 할 수는 있어도 어쩔수 없이 시간 속에서는 오래도록 견디기가 힘든것이다. 그 만큼 인생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젊음의 언더그라운드적 노력은 남보다 더 빛나는 시간을 획득해나가는 인생의 전략이며 자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부러 살아가는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개인전이나 그룹전 형식을 통해서 서로 만나거나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간의 지적 교류를 할때가 많다. 그러나 언더그라운드적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남을 비방하기 일수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더그라운드적 모임과 시간은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통해서 보다는 깊고 자연스럽게 감동과 희망과 끝없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나는 그렇게 많은 나이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내 젊음을 회상하면서 젊은 작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숨긴다는 겸손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하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그럴때만이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풍요로움을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과 시간속에 의미있고 오래도록 자연스럽게 견딜수 있다는 체험적 교훈이다. 이와 같은 체험은 나로서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아직도 유효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의 논조가 너무 평범하지만 더 이상 멋있게 쓸수 없도록 사실인것만은 틀림없다. 전북회화

비엔날레 유감

낡고 부서진 간이의자, 정성을 들였으나 어딘지 촌스러운 버스 시간표, 여느 터미널과 다를게 없지만 그 허름한 터미널 입구에 있는 가판에는 처참한 사진과 비디오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것이 광주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어쩌면 한참 예민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대학 1학년의 어설픈 앞지르기 였는지도 모른다.

그뒤 몇번을 더 광주에 가는 동안 어느날 그 허름한 터미널과 5.18 비디오를 팔던 아주머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말끔하게 단장한 종합터미널이 들어서 있었다.

그후 망월동으로 향하던 걸음이 뜸해지면서 시간과 함께 나도 변해갔고 다시 광주를 찾았을땐 망월동이 아닌 비엔날레를 가기 위해서였다.

깔끔하게 단장된 비엔날레 행사장에 도착했을땐 어디서도 과거 광주를 떠올릴 수 없었다. 광주 비엔날레는 미술의 대백과 사전을 보는 듯했다. 보통사람들에게 친숙한 사각틀의 평면 예술로부터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설치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은 이미 붓과 캔버스를 떠났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을 보며 현대 미술의 한가운데 서있음을 느꼈고 고전에 충실한 평면작품들도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수가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 스쳐지나가는 작품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몇분이고 머무르며 시간 주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작품 하나하나를 대할때마다 나의 미술에 대한 한계는 하나씩 깨져갔다.

그러나 평소 가까이 하지 않았던 탓에 미술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난, 작가의 표현의도를 미쳐 헤아려보지도 못한채 전시돼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버거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술에 대한 이런 수준은 나뿐만은 아니었던 것같다.

한 안내원이 어느 작품앞에서 이 그림이 바로 이번에 타계한 대만 작가 관집중의 작품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해주자 한 아주머니 曰

"그럼 그림값 엄청 뛰었겠네……"

대한민국에서 혼자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다던가. 그러니 비엔날레를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미술이 낯선 사람들이 었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야 없으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가 일반인들에게 미술의 문턱을 낮춰주는 계기가 됐음은 가장 큰 성과로 보고싶다. 그러나 아직까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않고 있는 광주에서 비엔날레의 출발이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포함돼 있음또한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망월동에서 통일미술축전이 열렸다는걸……

그리고 왜 1등이 잊어버리기 위하여가 됐는지 과연 얼마나 알고 돌아갔을까 다시 헤아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술이 정치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술은 어느것으로부터든 자유로워야 한다. 화려한 비엔날레 행사장을 빠져나오는데 행사장 후문 입구에서 5.18비디오를 팔던 아주머니를 만날수 있었다. 그 가판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서명용지만 하나 더 있을뿐 달라진건 하나도 없었다. 거기엔 절대 잊을 수 없는 광주의 상처가 있었다. 진정한 미술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위해 광주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전북회화

김지영/전주 MBC 구성작가

-광주비엔날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남의 집 잔치에 배앓이를 앓는 것은 졸부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기야 우리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매사 남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려니 싶다. 그렇기로서니 우리가 이웃집 잔치에 배만 웅켜쥔다고 될 일이 아닌 바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새기는 기회로 볼 일이다. 또한 큰 마음으로 생각하여 광주비엔날레가 남의 잔치정도로 생각해 버릴 일도 아니다. 역사는 항상 새롭게 판을 짜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역사"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따지고 보면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 규모의 문화행사는 전주같은 지역이 아주 제격이다. 왜냐하면 전주는 고전이 많은 도시로서 실상 한국의 전통문화의 메카로서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현대문화가 그럴듯하게 어울리는 모습은 생각하기만해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광주에서 일어났고 광주는 새로운 미술문화의 중심지역으로서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속담은 어쩌면 그렇게도 잘 들어 맞는지 모르겠다. 다름아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그 말을 광주비엔날레는 또 증명해 주었다.

우리네 심성은 너무 고와 3일 굶어도 손님 접대는 번듯하게 하는 백성이다. 빚을 내서라도 잔치는 크게 벌리는 습성이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잘 발휘되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200억이라고도 하고 180억이라고도 하는 큰 돈이 들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을 헤프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듣자하니 출품된 작가들의 수준도 이제 신진그룹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런 수준의 작품을 보아야만 하는지 우울하다.

이웃 일본은 동경국제비엔날레를 3번하고 말았다. 이유인즉슨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 동경이 돈이 없다는 엄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들은 돈이 없었을까? 아마도 부족한 생각으로는 돈에 상응하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베니스비엔날레는 80여억이 든다고 전해온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국가관이 독립되어 있고 그 출품방식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전시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베니스는 그 독특한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비엔날레를 더욱 빛내준다. 베니스는 년중 관광객이 몰려든다. 하루 평균 3~4만명이 뿌리고 가는 관광수입이 비엔날레를 키워간다. 우리처럼 생돈을 들여 잔치를 벌리지 않는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 넣는 관람료 수입은 계산하지 않았으면 한다. 외국 관람객은 쌀밥에 뉘가리기 보다 어려운데 내국인 호주머니 털어봐야 을씨년스럽게 했던것은 몇몇 특별전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특별전에 붙여진 명패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큐레이터의 개인적 그리고 주관적 평가가 전시를 모호하게 하고 말았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큐레이터의 개인적 친분관계로 전시를 꾸며놓아 당혹스럽기 까지한다. 이러한 작가에 의지한 전시태도는 본 전시에서도 뚜렷하다. 예를 들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는 한국 현대미술의 생성과정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좀더 깊이를 더하자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는 미국의 현대미술이다.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비디오아트는 우리미술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광주비엔날레는 과연 무엇을 보기 위한 행사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우리자신을 국제사회에 좀 더 알리기 위한 목표가 있었던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작품을 안방에서 보기 위해 불러들인 전시인가하는 점이 궁금하다. 여러번 생각해서 만일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찾아가서 관람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 중심을 두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이다. 이제 남의 나라에서 하고있는 비엔날레를 흉내내는 모양의 잔치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속담이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광주비엔날레가 처음부터 돈을 헤프게 쓰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데에 경각심을 주는 속담이기도 하고, 어차피 시작된 행사에 더욱 기다려 보자는 경구인것 같기도 하다.

전북은 문화의 고장이다. 광주비엔날레가 또 하나의 교훈으로 닥아온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고 키워가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디 미술에서 뿐이겠는가. 이 고장에서 발생한 우리의 전통음악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농경문화의 토양속에서 자란 각종 민속과 예기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전통 문인화가 발달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새롭게 키워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것을 알려주는 국제행사도 벌려야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그 거울이다.

전북회화

이철량/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바람소리 / 혼합재료 120×120. 1995

"구름의 존재란 자연의 일부이며 나의 작업에 있어서 생명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환 배

요즘 나의 작업은 구름을 소재로 연작하고 있다.

구름은 땅과 하늘 사이에 존재하고 인간은 땅과 구름사이에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묵묵히 아우성치며 산다.

나에게 있어서의 구름이란 존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머니의 젖줄기처럼 생명의 근원적 의미이며 무더운 여름날 일상 생활에서 지쳐 버린 육신을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다.

"구름의 존재란 자연의 일부이며 나의 작업에 있어서 생명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물고기가 물이 싫어 육지위에 살고
토끼가 땅이 싫어 바다속에 살고
장미가 가시가 싫어 꽃잎을 피우지 않고
구름이 하늘이 싫어 땅속에 산다면
인간은 사람들이 싫어 어디에 살꼬

아마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돼지 우리속에 살겠지.

이렇듯 존재의 의미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전북회화

'96 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월 신입회원 환영모임

2월 동계수련회 및 스케치여행

4월 상반기 정기세미나 및 정기모임

6월 정기 **전북회화회전**

8월 하계수련회 및 스케치 여행

제3회 전북회화회 편집모임

11월 제3회 전북회화지 발행

11월 정기 테마전 주제 세미나

12월 정기 테마전 예정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전북회화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투고와
전화를 기다립니다.

* 연락처 : 우 560－030
전주시 완산구 풍남 1동 41－2 (3층)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았음.

'95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 ▶ 일시 : 12월
- ▶ 장소 : 전북회화회 회의실
- 1년간 활동상황 및 회계보고
- 회칙 개정 및 차기회장 선출
- '95 신입회원 추천 및 영입

인쇄 : 서울정판인쇄사 ☎ (0652) 82-8267 · 86-5052

요금별납 전주우체국

님

전북회화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 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바로 보자는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